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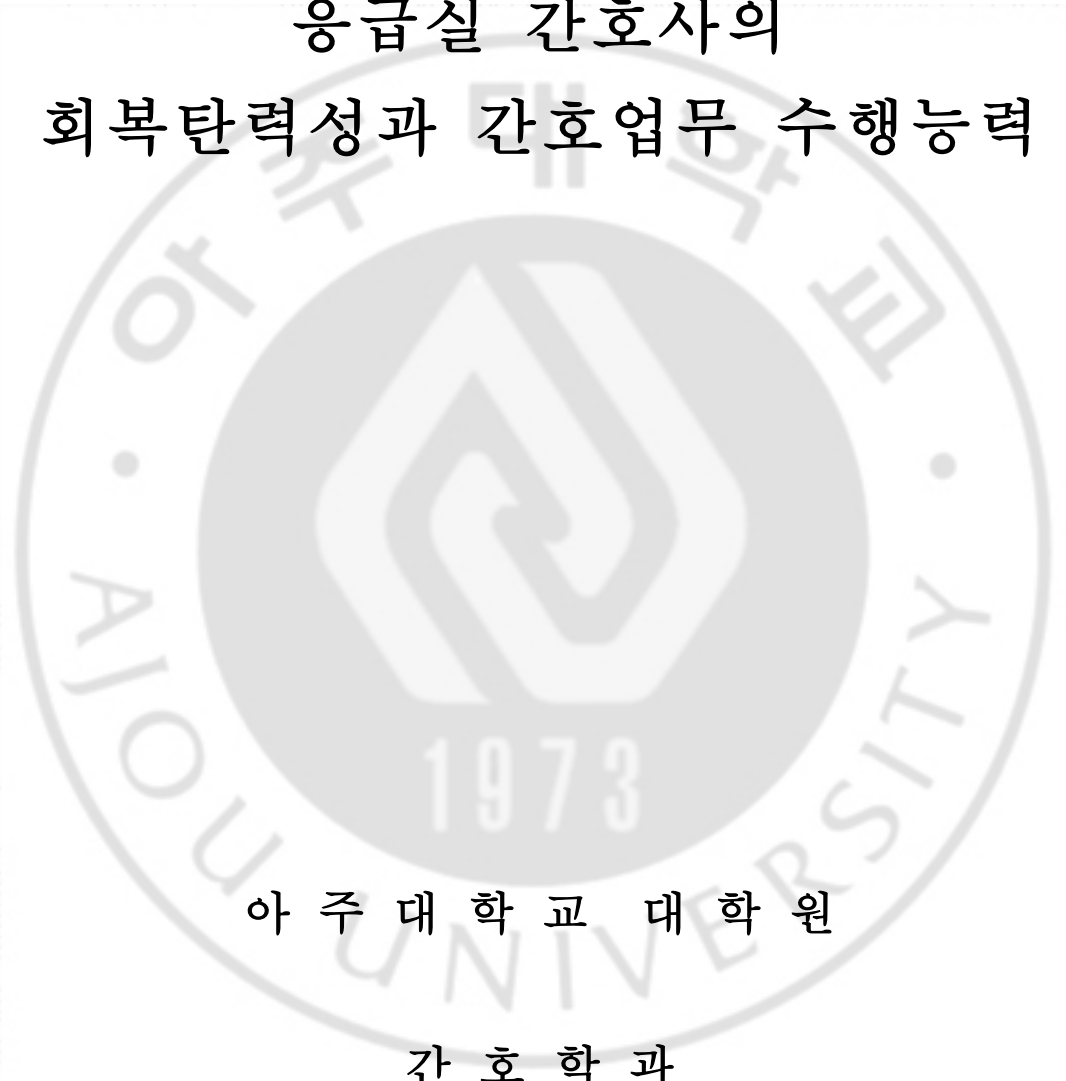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민성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지도교수 유혜라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민성

김민성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유혜라 (인)

심사위원 유미애 (인)

심사위원 박형란 (인)

아주대학교대학원

2015년 12월 18일

감사의 글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작한 석사과정
이 마무리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의 학업을 마치고도 긴 시간이 지
난 지금에 논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먼저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
신 유혜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제에
겐 가장 큰 힘이었고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응급실 상황에서도 수업과 실습에 차질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
록 배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노시정 UM 선생님과 이병옥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위해 설문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간호부의
신재선 팀장님과 송우정 UM 선생님의 고마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
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간호부 김영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과 어려
운 일에 항상 힘이 되어주는 여동생과 2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하며 학교생활이 행
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생들 양제원, 오성은, 노승혜, 김현진, 강진애, 이은숙에게
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그 동안 배운 지식을 기초 삼아 간호사로써 부끄
럽지 않은 진정성 있는 간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도
움과 힘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민 성

(지도교수 : 유 혜 라)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파악하고, 두 개념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C대학병원 6개 부속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52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복탄력성 도구는 Reivich 와 Shatté(2003)가 개발한 회복탄력성검사 (Resilience Quotient Test)도구를 김주환(2011)이 성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사용하였고 간호업무 수행능력 도구는 백현옥 (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정도구를 김윤희(2007)가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표준편차와 t-test, ANOVA, Scheff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탄력성은 53문항 최대 265점에 평균점수는 179.93 ± 18.68 점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이 평균 3.57 ± 0.39 점, 긍정성 영역이 평균 3.38 ± 0.48 점, 자기조절능력 영역이 평균 3.23 ± 0.41 점 순으로 나타났다.
2.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35문항 최대 175점에 평균점수는 124.47 ± 16.46 점으로 간호업무수행능력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업무지식 영역이 평균 3.81 ± 0.52 점, 간호윤리 영역이 평균 3.67 ± 0.60 점, 업무수행 영역이 평균

3.53±0.59점, 태도 및 자질 영역이 평균 3.53±0.59점 순으로 나타났다.

3. 회복탄력성은 거주형태($p<.017$), 종교($p<.030$), 최종학력($p<.040$), 응급실 만족도($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종교($p<.001$), 최종학력($p<.017$), 근무동기($p<.019$), 응급실 만족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601$, $p<.001$).

본 연구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일수 있는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전략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응급실 간호사, 회복탄력성, 간호업무 수행능력

차 례

감사의 글	i
국문 요약	ii
차 례	iv
표 차 례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4
II. 문헌고찰	6
1. 회복탄력성	6
2. 간호업무 수행능력	8
III. 연구 방법	11
1. 연구 설계	11
2. 연구 대상	11
3. 연구 도구	11
4. 자료수집방법	12
5. 윤리적 고려	13
6. 자료분석 방법	13
7. 연구의 제한점	13

IV. 연구결과	14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4
2.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	16
3. 연구대상자의 간호업무 수행능력 정도	17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차이	18
5.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상관관계	20
V. 논의	22
VI. 결론 및 제언	26
1. 결론	26
2. 제언	28
참고문헌	29
부록	35
ABSTRACT	47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표 2>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	16
<표 3> 연구대상자의 간호업무 수행능력 정도	17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차이	19
<표 5-1>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20
<표 5-2>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21

부록 차례

부록1. 설문지.....	35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의료는 많은 병원들의 무한경쟁과, 소비자들의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의료조직의 중요한 인력인 간호사들은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해야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간호의 질도 높여야 하는 등의 간호사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응급실의 24시간 개방으로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응급실 진료상황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비응급환자로 인한 업무과중과 입원대기 환자의 정체로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부담이 크며(김현옥, 2013; 조행난, 2011), 응급실의 과밀화 현상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양진향, 정혜연, 2008; 김수연, 2007). 응급실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갑자기 당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어 쉽게 흥분하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을 잃고 내원하기도 한다(노혜경, 2006). 또한 새로운 지식, 기술 및 정보 습득과 더불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양질의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는 늘 긴장과 주의력이 요구되어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실정에 있다(김민정, 2013; 변대식, 염영희,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상황에서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역할수행, 계획된 변화, 개인적 성장,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반복 또는 지속되거나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근무태만과 과실, 결근 및 소진을 초래하게 된다(강정숙 등, 2002). 심각한 수준의 역경이나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반복적으로 축적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민규, 2004). 간호사의 이러한 영향은 결국 자신과 환자, 나아가서는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Reivich 와 Shatté (2003)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총체적인 내적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간호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진 장점과 자원을 밝혀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개념으로,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다(김성남, 2014).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 업무수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김주환, 2011).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력을 쌓고 전문간호사로 발전해 나가고(Jackson, Firtko & Edenborough 2007)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간호사로서의 자존심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환자간호와 교육, 회의나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타부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간호업무수행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업무수행에서 느끼는 직무만족감은 병원의 주 고객인 환자와 간호사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청운, 2010).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이란 모든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대상자인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과학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환자에게 수행하는 간호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환자가족, 보호자 및 직장의 동료나 타부서 직원과 갖은 의사소통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방순식, 2014). 서이아(2001)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응급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의 간호업무를 적용하면서 정확하고 즉각적인 간호사정으로 전인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간호업무 현장의 근무 조건이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도에 미치지 않아 응급실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간호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김미란, 2008; 진혜경, 2012).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효율적인 간호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응급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높여야 함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간호사가 업무에 만족감을 가지게 되면, 그에 따르는 간호업무 수행능력도 향상될 수 있으므로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환자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김성남, 2014), 신규간호사의 직장내 약자괴롭힘 경험과 회복탄력성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조은아, 2013),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열의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문인호, 박숙경과 정정미, 2013),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조직사회화의 관계(김수경, 2013), 신규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조직사회화(박소연, 2013),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박계숙, 2013), 간호사의 탄력성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김부남, 오현숙과 박용숙, 2011),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고찰(Jackson et al., 2007), 중환자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Mealer et al., 2012) 등이 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수술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능력의 관계(박은선, 2014),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박진영, 2011),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노예서, 2010), 임상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청운, 2010), 임상간호사의 영적안녕과 간호업무수행(이선화, 2009) 등이 있으나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정도와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2)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회복탄력성

- 이론적 정의: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총체적인 내적 능력이다(Reivich & Shatté, 2003).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eivich 와 Shatté(2003)가 개발한 회복탄력성검사 (Resilience Quotient Test)도구를 김주환(2011)이 성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사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간호업무수행능력

- 이론적 정의: 간호대상자의 치유,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제공하는 간호활동의 집합으로, 간호 대상자인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행위와 간호 관리업무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간호행위 모두를 포함한다(박정호, 성영희, 200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백현옥(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정 도구를 김윤희(2007)가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회복탄력성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학에서 힘이 가해질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 ‘신체나 물체 따위가 튀기는 힘이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회복’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의미하고 ‘회복탄력성’은 심리학에서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신체적·심리적 위험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고(홍영희, 2013) 주로 긍정 심리학에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신 건강을 연구할 때 등장하는 개념으로,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을 뜻한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나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자원이며 동시에 직면하게 될 스트레스나 역경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김민정, 2013). Reivich 와 Shatté(2003)는 회복탄력성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총체적인 내적 능력이라고 했으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발달 과정으로 보고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김희정, 2012).

Resilience의 개념은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회복탄력성(송혜옥, 2014; 박숙희, 2014; 배혜련, 2012), 자아탄력성(김수연, 2014; 박계숙, 2013; 김수경, 2013), 적응유연성(최미선, 2014), 회복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자아탄력성이 회복탄력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Block 와 Kremen(199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정의하였으며, 김희정(2012)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적 요구들에 좌절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도 완고한 모습을 보이거나 굳건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고, 박계숙(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개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을 성공과 적응

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이나 특성을 규명하는데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었고, 자아탄력성을 정해진 특성(trait)으로 개념화 하였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이에 적응하고 오히려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의미하고(Connor, 2006),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고(송혜옥, 2014), 개인의 타고난 자질이라기 보다는 학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이고 이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고 키울 수 있다고 하였고(김주환, 2011)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Dyer & McGuinness, 1996).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쳐서 ‘회복탄력성’이라고 명명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정의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보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Reivich 와 Shatté(2003)가 감정통제력, 자기효능감, 충동통제력, 낙관성, 적극적도전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으로 제시한 구성요소를 김주환(2011)이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로 수정·보안하여 자기조절능력은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으로, 대인관계능력은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으로,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로 재구성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이란 스스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관계능력은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알아내고 자기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능력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긍정성은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만족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다.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김부남 등(2011)은 임상간호사

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인오(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면 직무열의가 증가되고 소진을 줄이며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김수연(201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에 속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스트레스 상황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오랜 세월 동안 고착된 간호사에 대한 역할 기대, 구조적 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권수현(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들은 직무수행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이 가진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재적용하여 심리적 소진이 예방되었다고 하였고(홍영희, 2013 재인용), Mealer 등(2012)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역경을 극복하여 경력을 쌓고 간호 전문가로서 발전하지만,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간호사는 임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정서를 견디지 못하고 소진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신주희, 20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간호업무 수행능력

의료환경은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 되어가고 각 의료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간호 인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노예서, 2010). 응급실 이용 환자 수도 연간 2013년도에 6,462,000에서 2014년도에 7,948,000명(중앙응급의료센터, 2015)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의 의료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세분화된 간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김현숙과 원종순, 2004)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의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업무수행이라 함은 간호사가 환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행하는 전문적 간호행위를 말하며(김미란, 2008), 간호수행능력 또는 간호역량은 모든 임상적 수행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간호직무상으로 충분한 지식과 판단력, 기술,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 또는 상태라고 하였다(장금성, 2000). 이윤하(201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은 모든 임상적 수행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도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병원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호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병원 전체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되고, 그 효과는 병원 전체조직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미란, 2008). 즉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은 병원조직의 성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김명숙, 2013). 간호사는 업무경력을 쌓을수록 자신감과 능숙성, 지도력을 얻을 수 있으며(김정혜, 2010), 경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으로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정지선, 2014). 또한 간호사의 업무수행정도가 높은수록 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임파워먼트도 높았고 자율성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윤민, 2006). 이러한 현실하에 간호사는 막연히 그 전문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간호직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직위를 향상 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자신이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의욕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김미란, 2008).

홍미순, 이경미, 정경인(2006)의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간호의 질적 향상과 간호전문직 발전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보았고 김수연(2002)은 업무수행은 환자의 개별적 요구에 근거하여 환자의 안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업무에 치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안미정(2003)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의 저하는 업무상의 생산성의 효율의 저하, 의욕상실, 간호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불친절 등을 야기 시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간호사 개인

의 안녕을 위협하여 정상적인 신체기능의 이상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이수진, 2013).

질적인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간호를 지향해야하고, 간호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의 능력을 발전 시켜야 한다(배경옥, 2007).

이은남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응급실의 간호업무는 호흡간호, 투약간호, 안전간호, 측정 및 관찰, 영양간호, 배설간호, 위생간호, 운동 및 자세 유지, 안위간호, 환자교육, 검사관련간호, 특수간호, 간호관리, 의사소통, 교육, 자문, 연구영역으로 17개 간호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고유의 응급실 간호업무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내원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도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업무량은 조절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촉각을 다투는 업무들이 예고 없이 끼어들게 되어 사실상 지속적이면서 통합적인 간호업무수행의 어려움과(진혜경, 2012)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응급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의 간호업무를 적용하면서 정확하고 즉각적인 간호사정으로 전인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서이아, 2001). 하지만 간호사는 간호윤리 강령에 준하여 간호행위에 있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일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나 행동을 민첩하게 판단하여 그 변화에 대응하여 이상적으로 과감하게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청운, 2010). 따라서 간호업무수행이라 함은 간호사가 환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행하는 전문적 간호행위이며,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이 선행되어야 하고 간호직의 현실을 직시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의욕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말한다(김미란, 2008).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C대학병원 6개 부속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75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 연구 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으로 대상자를 산출 결과 최소 157명이었으나 회수율 부족과 설문 누락 데이터를 고려하여 175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70부였고 누락된 응답이 있는 불충분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최종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도구는 Reivich 와 Shatté(2003)가 개발한 회복탄력성검사 (Resilience Quotient Test)도구를 김주환(2011)이 성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53문항으로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18문항,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18문항,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1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효정과 석은조(2013)의 연구는 Cronbach' α .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2였다.

2)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호업무 수행능력 도구는 백현옥(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정 도구를 김윤희(2007)가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내용은 태도 및 자질 영역 13문항, 업무지식 영역 8문항, 간호윤리 영역 7문항, 업무수행 영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최소 35점에서 최대 17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윤희(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97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6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 C대학병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와 A대학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와 심의를 받은 후, 3월-8월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응급실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C대학교 병원의 6개 부속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UC15QAMI0022)과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SBR-SUR-14-426)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를 정해진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 하였으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여 즉시 코딩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으며, 동의서와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연구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안전하게 폐기할 것이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회복탄력성 및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정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 test로 분석하였다.
- 3)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총 152명 중 여자가 136명(89.5%)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14명(75%)이었으며 거주형태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103명(67.1%), 혼자 사는 사람이 50명(32.9%)이었다. 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2명(73.7%), 종교가 없는 사람이 40명(26.3%)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자가 80명(52.6%), 3년제 대졸자가 62명(40.8%),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가 10명(6.6%)이었고 총 근무 경력은 1-5년차가 84명(55.3%), 6-10년차가 46명(30.3%), 11-15년차가 14명(9.2%), 15년차 이상 8명(5.3%)순이었다. 응급실 근무 경력은 1-5년차가 98명(64.5%), 6-10년차가 43명(38.3%), 11-15년차가 11명(7.2%)순이었다. 근무형태로는 3교대 근무가 150명(98.7%), 상근근무가 2명(1.3%)이었고 현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10명(72.4%), 책임간호사가 42명(27.6%)로 나타났다. 응급실 근무동기로는 '응급실 근무를 원했다'가 114명(75%), '응급실 근무를 원하지 않았다'가 38명(25%)로 나타났다. 응급실 근무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가 60명(39.5%), '그저그렇다'가 59명(38.8%), '불만족이다'가 33명(21.7%)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2)

특성	구분	n	%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성	136	89.5	
	남성	16	10.5	
연령	20-29세	109	71.7	28.38±5.03
	30-39세	37	24.3	
	40-49세	6	3.9	
결혼	무	114	75	
	유	38	25	
거주형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다	102	67.1	
	혼자산다	50	32.9	
종교	유	112	73.7	
	무	40	26.3	
최종학력	3년제 대졸	62	40.8	
	4년제 대졸	80	52.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0	6.6	
임상 총 경력	1-5년	84	55.3	70.88±55.92
	6-10년	46	30.2	
	11-15년	14	9.2	
	15년 이상	8	5.3	
응급실 경력	1-5년	98	64.5	56.24±39.68
	6-10년	43	28.3	
	10-15년 이상	11	7.2	
근무형태	3교대	150	98.7	
	상근직	2	1.3	
현직위	일반간호사	110	72.4	
	책임간호사	42	27.6	
근무동기	응급실 근무 원해서	114	75	
	응급실 근무를 원하지 않음	38	25	
만족도	만족한다	60	39.5	2.85±0.95
	그저그렇다	59	38.8	
	불만족하다	33	21.7	

2.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표 2>와 같다.

회복탄력성은 53문항 최대 265점에 평균점수는 179.93±18.68점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소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이 평균 3.57±0.39점, 긍정성 영역이 평균 3.38±0.48점, 자기조절능력 영역이 평균 3.23±0.41점 순으로 회복탄력성 정도는 대인관계능력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총점은 각 요인별 문항 수로 나누어 5.00점 만점의 평균평점을 구하였다.

<표 2> 회복탄력성 정도

(N=152)

하위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총점	53	179.93±18.68	3.39±0.35
자기조절능력	18	58.17±7.37	3.23±0.41
대인관계능력	18	64.29±7.08	3.57±0.39
긍정성	17	57.47±8.15	3.38±0.48

3. 연구대상자의 간호업무 수행능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간호업무 수행능력 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35문항 최대 175점에 평균점수는 124.47±16.4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하위 구성요소의 평균을 살펴보면 업무지식 영역이 평균 3.81±0.52점, 간호윤리 영역이 평균 3.67±0.60점, 업무수행 영역이 평균 3.53±0.59점, 태도 및 자질 영역이 평균 3.53±0.59점 순으로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업무지식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총점은 각 요인별 문항 수로 나누어 5.00점 만점의 평균평점을 구하였다.

<표 3> 간호업무 수행능력 정도

(N=152)

하위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총점	35	124.47±16.46	3.56±0.47
태도 및 자질	13	43.61±7.08	3.35±0.54
업무지식	8	30.44±4.15	3.81±0.52
간호윤리	7	25.71±4.18	3.67±0.60
업무수행	7	24.71±4.16	3.53±0.59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회복탄력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임상 총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근무형태, 현직위, 근무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거주형태($p<.017$), 종교($p<.030$), 최종학력($p<.040$), 응급실 만족도($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형태, 임상 총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현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종교($p<.001$), 최종학력($p<.017$), 근무동기($p<.019$), 응급실 만족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차이

(n=152)

특성	구분	회복탄력성			간호업무 수행능력		
		M±SD	t/F (p)	Scheff	M±SD	t/F (p)	Scheff
성별	여자	179.10 ± 18.66	-1.62		124.03 ± 16.08	-0.97	
	남자	187.06 ± 17.89	(.107)		128.25 ± 19.58	(.334)	
연령	20-29세a	179.50 ± 18.96	1.11	a, <b,c	124.07 ± 16.44	1.08	
	30-39세b	182.65 ± 17.77	(.333)		126.89 ± 15.08	(.343)	
	40-49세c	171.00 ± 18.68			116.83 ± 24.25		
결혼	유	179.56 ± 19.62	-0.43		124.18 ± 17.22	-0.37	
	무	181.05 ± 15.71	(.671)		125.34 ± 14.10	(.709)	
거주 형태	함께산다	182.46 ± 17.77	2.42		125.70 ± 16.53	1.31	
	혼자산다	174.78 ± 19.61	(.017)		121.98 ± 16.19	(.190)	
종교	유	181.89 ± 19.26	2.19		127.44 ± 16.50	3.88	
	무	174.45 ± 15.94	(.030)		116.18 ± 13.37	(.001)	
최종 학력	3년제 졸a	176.05 ± 18.17	3.29	a<c	120.27 ± 15.39	4.19	a,b<c
	4년제 졸b	181.66 ± 18.79	(.040)		126.69 ± 16.68	(.017)	
	대학원c	190.20 ± 16.47			132.80 ± 16.02		
임상 총 경력	1-5년a	178.96 ± 18.46		c>d	123.80 ± 15.09		
	6-10년b	181.70 ± 20.21	1.21		125.04 ± 18.63	0.41	
	11-15년c	185.14 ± 15.23	(.310)		128.36 ± 14.03	(.748)	
	15년이상d	170.88 ± 15.90			121.50 ± 22.37		
응급실 경력	1-5년	179.55 ± 18.45	0.16		124.23 ± 15.22	0.26	
	6-10년	180.05 ± 19.26	(.853)		124.14 ± 18.87	(.774)	
	11-15년	182.91 ± 20.02			127.91 ± 18.26		
근무형태 형태	3교대	179.81 ± 18.77	0.73		124.25 ± 16.44	1.48	
	상근직	189.50 ± 6.36	(.468)		141.50 ± 7.78	(.141)	
현직위	일반간호사	180.45 ± 19.08	0.55		125.45 ± 15.81	1.18	
	책임간호사	178.60 ± 17.76	(.587)		121.93 ± 18.01	(.240)	
근무 동기	응급실 근무 원해서	181.64 ± 18.91	1.97		126.28 ± 16.94	2.38	
	응급실 근무 원하지 않음	174.82 ± 17.22	(.051)		119.05 ± 13.75	(.019)	
만족도	만족a	185.75 ± 18.24	6.55	a>c	129.87 ± 15.19	11.64	a<b,c
	보통b	178.49 ± 18.67	(.002)		124.97 ± 16.06	(.001)	
	불만족c	171.94 ± 16.40			113.79 ± 14.58		

5. 연구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는 <표 5-1>과 같다.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하부요인 중 상관계수가 0.4에서 0.6정도로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자기조절능력과 태도 및 자질, 대인관계능력과 태도 및 자질, 긍정성과 태도 및 자질, 긍정성과 간호윤리 요인이었으며 0.2에서 0.4정도로 보통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자기조절 능력과 업무지식, 자기조절능력과 간호윤리, 자기조절능력과 업무수행, 대인관계능력과 업무지식,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윤리, 대인관계능력과 업무수행, 긍정성과 업무지식, 긍정성과 업무수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1> 하위영역별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N=152)		
구분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간호업무수행능력	r(p)	r(p)	r(p)
	태도 및 자질	.506 (<.001)	.551 (<.001)	.504 (<.001)
업무지식	.283 (<.001)	.420 (<.001)	.268 (<.001)	
간호윤리	.352 (<.001)	.424 (<.001)	.504 (<.001)	
업무수행	.282 (<.001)	.375 (<.001)	.336 (<.001)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표 5-2>와 같다.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0.601$, $p<.001$).

<표 5-2>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구분	회복탄력성 r(p)
간호업무 수행능력	0.601 (<.001)

V. 논의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3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송혜옥(2014)의 연구에서 보고된 3.52점으로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이승희(2008)의 연구에서는 3.49점, 병원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연구한 박숙희(2014)의 연구에서 3.54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세영(2008)의 연구에서의 3.5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가 다른 부서의 간호사보다 회복탄력성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연구의 도구는 다르지만 국내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부남 등의 연구에서 58.26점(2011),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계숙(2013)의 연구에서는 62.75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성남(2014)의 연구에서 60.16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홍영희(2013)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3.61점,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권수현(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3.88점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시간적 압박, 과도한 업무량, 인수인계,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인관계 갈등 등으로 지속적이며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으므로 회복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조은아, 2013). 그러나 연구도구와 연구대상자에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회복탄력성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가족과 거주하고 종교가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상근직이며 응급실 근무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부남 등(2011)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종교, 최종학력, 연간 소득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응급실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을 연구한 박유진(2015)의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 최종학력,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 3.57±0.39점, 긍정성 3.38±0.48점, 자기조절능력 3.23±0.41점 순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대인관계능력 3.69±0.42점, 긍정성 3.46±0.53점, 자기조절능력 3.42±0.42점으로 나타난 송혜옥(2014)의 연구결과와 공통적으로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연구한 김민정(2013)의 연구에서는 긍정성 4.51점, 대인관계능력 3.53점, 자기조절능력 3.31점으로 긍정성이 높게 나타나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었으나 자기조절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동일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사가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환자와 간호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동료 간호사 및 병원 내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 대인관계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한다(이수진, 2013). 박현진(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긍정적 미래 지향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김명희(2012)의 연구를 보면 자기조절학습 훈련프로그램이 인지조절과 동기조절, 행동조절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낸다고 하였으며 Zander, Hutton과 King(2010)은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긍정성과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전략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업무 수행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노예서(2010)의 연구에서 3.91점 보다 낮게 나타났고 김윤희(2007)의 연구결과 3.50 보다 높게 나왔다.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을 연구한 정지선(2013)의 연구에서는 3.70점, 박은선(2014)의 연구에서는 3.62점, 임상 간호사의 업무성과를 연구한 이수진(2013)의 연구에서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3.68점, 신규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을 연구한 방순식(2014)의 연구에서는 3.10점으로 수술실과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신규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최종학력이 높고, 응급실 근무를 원했으

며, 응급실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도구는 다르나 종교, 임상경력, 학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김미란(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근속을 함으로써 숙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에 대한 학습의지 및 태도에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미란, 2008),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들은 간호수행능력 뿐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며, 신규 간호사들에게 교육과 협동을 발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간호업무를 성취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숙련된 간호사를 장기보유할 수 있는 경력자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숙희, 2014).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업무지식 3.81점, 간호윤리가 3.67점, 업무수행이 3.53점, 태도 및 자질이 3.35점이었고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을 연구한 노예서(2010)의 연구에서 태도 및 자질이 4.06점, 업무지식이 4.02점, 간호윤리가 4.02점, 업무수행이 3.96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 수행과 태도 및 자질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간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의 발전으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업무 외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홍경자, 탁영란, 2002). 특히 응급실의 근무환경, 대인관계, 간호업무 및 일반 병동과는 다른 상황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 임상경력, 종교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고(변기진, 200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간호 목표달성을 위한 능력발휘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고(박성애, 2001), Anderson(1997)의 연구에서는 응급실의 간호사는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업무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독자적인 간호행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며, 임상수행능력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Lee-Hiseh 등, 2003). 또한 간호업무가 병원이란 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부서와 협동 작업을 통해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술의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배주영, 2008).

회복탄력성이 간호업무 수행능력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숙희(2014)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하위영역별 모든 영역에서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조절능력과 태도 및 자질, 대인관계능력과 태도 및 자질, 긍정성과 태도 및 자질, 긍정성과 간호윤리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조절 능력과 업무지식, 자기조절능력과 간호윤리, 자기조절능력과 업무수행, 대인관계능력과 업무지식,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윤리, 대인관계능력과 업무수행, 긍정성과 업무지식, 긍정성과 업무수행 요인은 보통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에서 자기조절능력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에서의 태도 및 자질이 상관관계에서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각 각의 하위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조절능력은 분노나 짜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힘든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자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진단해내는 능력(김주환, 2011)이므로 간호사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면 근무환경, 대인관계, 간호업무, 부정적인 시각이나 태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기존 시행 효과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사회에 진출하여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증가시켜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C대학병원 6개 부속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5년 3월1일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Rivich 와 Shatté, (2003)가 개발한 회복탄력성검사 (Resilience Quotient Test)도구를 김주환(2011)이 성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QR-53)를 사용하였고, 간호업무 수행능력 측정도구는 백현옥(2004)이 개발한 임상 간호사의 업무수행 평정도구를 김윤희(2007)가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9.5%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 75%, 거주형태는 가족과이나 친구와 함께 산다가 67.1%로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3.7%, 최종학력이 4년제 대졸자가 52.6%, 총 근무 경력은 1-5년차가 55.3%, 응급실 근무 경력은 1-5년차가 64.5%으로 많았으며 근무형태로는 3교대 근무가 98.7%, 일반간호사가 72.4%, 응급실 근무동기로는 ‘응급실 근무를 원했다’가 75%, 응급실 근무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39.5%순으로 나

타났다.

2. 회복탄력성은 53문항 최대 265점에 평균점수는 179.93 ± 18.68 점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이 평균 3.57 ± 0.39 점, 긍정성 영역이 평균 3.38 ± 0.48 점, 자기조절능력 영역이 평균 3.23 ± 0.41 점 순으로 회복탄력성 정도는 대인관계능력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35문항 최대 175점에 평균점수는 124.47 ± 16.46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업무지식 영역이 평균 3.81 ± 0.52 점, 간호윤리 영역이 평균 3.67 ± 0.60 점, 업무수행 영역이 평균 3.53 ± 0.59 점, 태도 및 자질 영역이 평균 3.53 ± 0.59 점 순으로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업무지식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회복탄력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임상 총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근무형태, 현직위, 근무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거주형태($p < .017$), 종교($p < .030$), 최종학력($p < .040$), 응급실 만족도($p < .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형태, 임상 총 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현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종교($p < .001$), 최종학력($p < .017$), 근무동기($p < .019$), 응급실 만족도($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하부요인 중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자기조절능력과 태도 및 자질, 대인관계능력과 태도 및 자질, 긍정성과 태도 및 자질, 긍정성과 간호윤리 요인이었으며 보통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자기조절 능력과 업무지식, 자기조절능력과 간호윤리, 자기조절능력과 업무수행, 대인관계능력과 업무지식, 대인관계능력과 간호윤리, 대인관계능력과 업무수행, 긍정성과 업무지식, 긍정성과 업무수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6.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601$, $p < .001$).

본 연구 결과,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대책이 필요하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자 수와 지역을 확대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알아보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숙, 김이루미, 노경미, 안지숙, 이순연, 장효실, 최영은 (2002). 임상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81-97.
- 권수현 (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미란 (2008).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업무수행과 재직의도*.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명숙 (2013). *경력개발시스템이 간호사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명희 (2012).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
- 김민정 (2013).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대구.
- 김부남, 오현숙, 박용숙 (2011). 간호사의 탄력성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1), 14-23.
- 김성남 (2014). *중환자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
- 김수경 (2013).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조직사회화의 관계*.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진주.
- 김수연 (2002). *일 응급의료센터의 비응급질환자 내원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수연 (2007).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폭력과 폭력반응*. 을지의과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김수연 (2014).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윤희 (2007). *경락마사지가 응급실 간호사의 피로와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효과*.

-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주.
- 김정혜 (2010). *수술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업무수행능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청운 (2010). *임상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정보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현숙, 원종순(2004).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연구도 비교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1(3), 299-308.
- 김현옥 (2013).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김희정 (2012). *콜센터 상담사의 회복탄력성과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노예서 (2010).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수행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수원.
- 노혜경 (2006).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폭력과 정서적 반응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공주.
- 문인호, 박숙경, 정정미 (2013.)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열의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19(4), 525-535.
- 박계숙 (2013).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성애 (2001).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행위유형과 사회적지지 및 직무스트레스*. *간호행정학회지*, 7(2), 349-359.
- 박소연 (2013). *신규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조직사회화*.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진주.
- 박숙희 (2014). *병원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유진 (2015). *응급실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재난에 대한 경험 및 재난간호 핵심수*

- 행능력과 관계. *임상간호연구*, 21(1), 67-79.
- 박은선 (2014). *수술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능력의 관계*.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정호, 성영희 (2000). 한국 표준 간호행위 분류. *대한간호학회지*, 30(6), 1412-1413.
- 박진영 (2011).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공주.
- 박현진 (2009). *자아탄력성 증진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방순식 (2014). *신규간호사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과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수행능력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배경옥 (2007). *간호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배주영 (2008).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고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배혜련 (2012).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
- 백현숙 (2010). *한국형 Connor-Davidson 회복탄력성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을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백현옥 (2004). *임상간호사의 업무수행 평정도구 개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변대식, 염영희 (2009).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15(3), 444-454.
- 변기진 (2001). 응급실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경북간호학회지*, 6(2), 1-22.
- 서이아 (2003). *일반간호사의 조직 내 의사소통유형과 직무만족 및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송경자, 박승현, 조정숙, 권미경, 박정선, 남승남, 유미, 김명애 (2006). 일개 대학병

- 원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12(1), 97-108.
- 송혜옥 (2014). *병원 종사자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31-150.
- 신주희 (2015).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공감만족과 공감피로*.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경기.
- 안미정 (2003).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 실천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양진향, 정혜연 (2008).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의 실태와 반응. *인제논총*, 23(1), 517-535.
- 이민규 (2004). *현대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선화 (2009). *임상간호사의 영적안녕과 간호업무수행*.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수진 (2013). *임상 간호사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능력 업무성과와의 관계*. 아주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경기.
- 이승희 (2008).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1), 10-20.
- 이윤민 (2006). *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이윤하 (2011).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무만족도*. 전남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광주.
- 이은남, 김복자, 김성숙, 강경희, 김영순 (2008).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분석을 통한 경력등급별 실무교육안 개발. *임상간호연구학회지*, 14(1), 99-111.
- 임세영 (2008). *수술실 간호사의 전문직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
- 장금성 (2000). *간호사의 임상경력 개발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

- 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정지선 (2014). 술실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과 전문직 정체성이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주.
- 조은아 (2013). 신규간호사의 직장내 약자괴롭힘 경험과 회복탄력성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부산.
- 조행난 (2011).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강인성 및 소진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진혜경 (2012).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응급실 간호사의 태도와 간호업무수행. 경북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대구.
- 최미선 (2014). 간호사의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효정, 석은조 (2013).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93-115.
- 홍경자, 탁영란 (2002). 전문직 여성의 직무스트레스 직업만족도 건강: 간호사와 교사 그룹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4), 570-579.
- 홍미순, 이경미, 정경인 (2006).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업무수행과의 관계. *간호과학논집*, 11(1), 97-108.
- 홍영희 (2013).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내원환자 수. 국가응급환자진료 정보망. <http://edis.nemc.or.kr/>
- Anderson, M. & Standen P. J. (2007). Attitudes towards suicide among nurses and doctors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self-harm.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470-477.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Connor, K. M. (2006). Assessment of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2), 46-49.
- Connor, K. M., Davidson, J. R. T.,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Dyer, J. G., &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Jackson, D., Firtko, A., & Edenborough, M. (2007).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1), 1-9.
- Lee-Hsieh, J., chihui Kao., Chienlin Kuo., & Tseng, H. F. (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RN-to-BSN students in a nursing concept-based curriculum in taiwa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12), 536-545.
- Mealer, M., Jones, J., Vewman, J., McFann, K. K., Rothbaum, B., & Moss, M.(2012). The presence of resilience is associated with a healthier psychological profile in intensive care unit nurs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9*(3), 292-299.
- Reivich, K., & Shatté,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Books.
- Zander, M., Hutton, A., & King, L. (2010). Coping and resilience in pediatric oncology nurses.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Nursing. 27*(2), 94-108.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응급전문간호과정을 전공하는 김민성입니다.

설문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알아 보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150명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입력식 설문으로 진행할 서술적 조사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2015년 3월~2016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귀하의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름이나 식별번호가 없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무기명 설문조사로 응답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첫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20분 정도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설문지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하지 않거나 중단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원 응급전문

지도교수: 유혜라 연락처:010-3248-2831

연구자: 김민성 연락처:010-8755-1846

2015년 월 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O'를 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만()세

3.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4. 귀하의 거주 형태는? ① 가족과 함께 산다
②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산다
③ 혼자 산다

5. 귀하의 종교는? ① 천주교 ② 개신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6. 최종학력: ① 3년제 대졸 ② 4년제 대졸 ③ 대학원 재학 및 졸업

7. 귀하의 총 근무 경력은? ()년 ()개월

8. 귀하의 응급실 근무 경력은? ()년 ()개월

9.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3교대 ② 상근직

10. 귀하의 현직위는?

① 일반간호사(acting 간호사) ② 책임간호사(charge 간호사)
③ 수간호사 ④ 코디네이터 ⑤ 전문인력(전담간호사/CNC/PA
(근무 중 가장 많이 하는 포지션을 체크해주시오.)

11. 응급실에서 근무하게 된 동기는?

① 응급실 근무를 위해서 ② 타부서를 원했으나 발령이 늦어져서
③ 특별히 원하는 부서가 없어서

12. 응급실 근무 만족도는?

① 매우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그렇다
④ 불만족 하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II. 다음은 회복탄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V’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2.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3.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4.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바람이 나기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5. 나는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6. 때때로 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집중하기 힘들다.					
7.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내고 할 일을 한다.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9.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1. 평소 경제적인 소비나 지출 규모에 대해 별다른 계획 없이 지낸다.					
12. 미리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13.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4.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16. 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7.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18.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20. 나는 재치있는 농담을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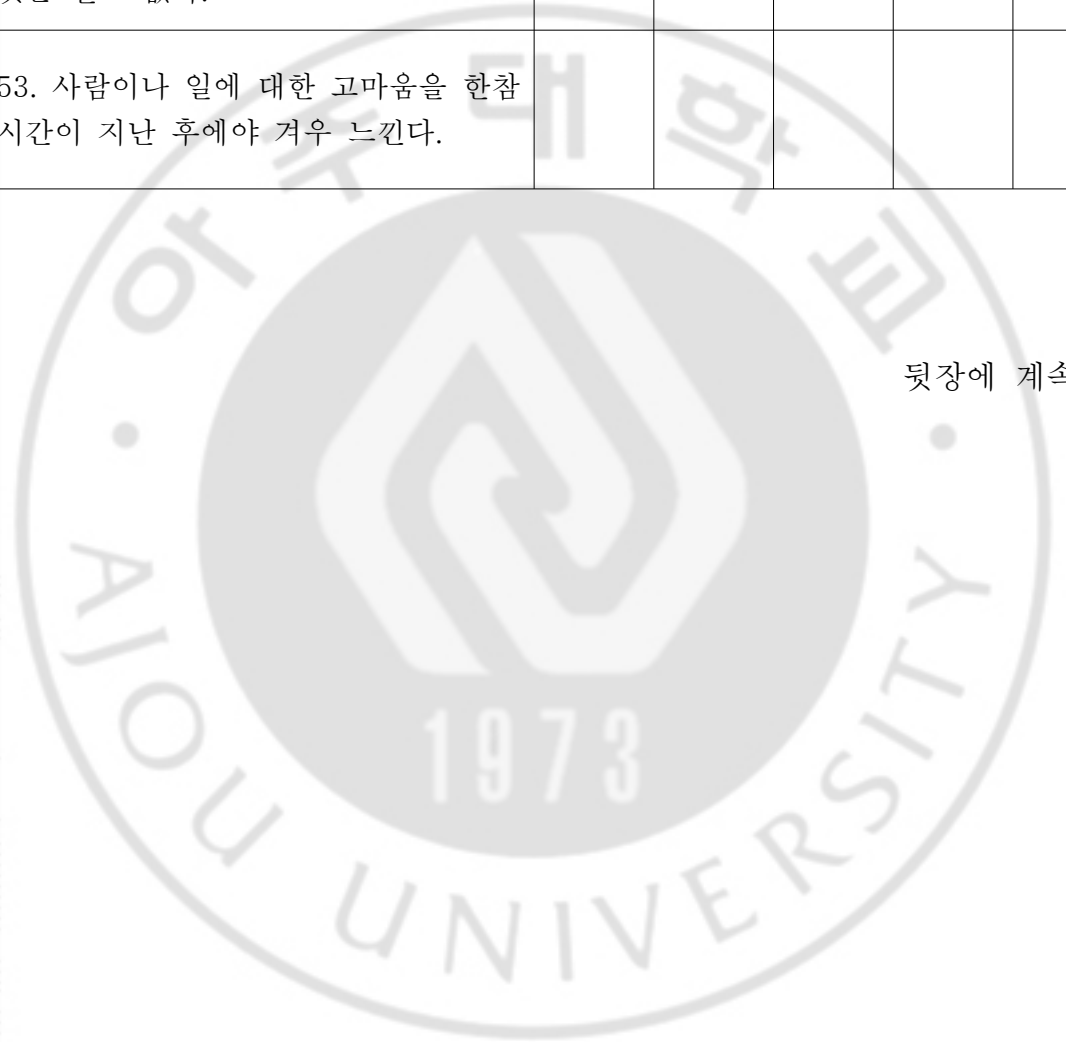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22. 나는윗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3. 나는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화 내용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					
24. 대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					
25.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28. 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때로 이해하기 힘들다.					
29. 나는 친구나 애인 혹은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30.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나는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32.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33.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34.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35.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36.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37.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8.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9.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40. 내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걱정한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는다.					
42.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43.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44.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45.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6.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갖고 있다.					
47.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현재 삶을 다시 살고 싶다.					
48.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49.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50.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사건, 생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간다.					
51.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은 별로 없다.					
53. 사람이나 일에 대한 고마움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느낀다.					

뒷장에 계속



Ⅲ. 다음은 업무수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V’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예의범절이 바르고 모범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였다.					
2.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녔다.					
3. 친절하고 상냥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로 직장 분위기를 밝게 하였다.					
4. 도움이 되는 충고 및 조언을 받아들일려는 자세를 지니려고 노력하였다.					
5. 동료간에 상호협조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사랑과 희생 봉사정신을 지녔다.					
7. 조직 및 소속 부서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다.					
8. 조직이 추구하는 방침, 규칙 등을 잘 준수하였다.					
9.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자세를 가졌다.					
10. 근무 중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환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2.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업무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였다.					
13.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적 간호를 제공하였다.					
14.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약물 및 마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며 투약하였다.					
15.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원칙에 맞게 관리 수행하였다.					
16. 응급실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행하였다.					
17. 응급실에 요구되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고 수행하였다.					
18. 응급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물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였다.					
19. 응급실 업무수행 시 다양한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간호를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20. 응급실 업무와 관련된 검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검사물에 대해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1. 응급실 업무의 내용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하였다.					
22.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23. 환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24. 환자의 생명과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에 최선을 다하였다.					
25. 환자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26.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7. 전문적인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개인 활동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8. 직업에 대한 긍지와 윤리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다.					
29. 새로운 장비, 물품의 관리 및 사용법을 익히는데 적극적이었다.					
30. 응급실 업무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절차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였다.					
31.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환자의 이차적인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32.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와 관찰을 기울여 간호하였다.					
33. 응급실 업무수행 시 또는 과정 중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였다.					
34.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하게 사용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35. 멸균 및 소독에 대한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및 처치 전 관정에 있어 무균법을 시행하였다.					

- 감사합니다 -

-ABSTRACT-

Relations between Resilience and Nursing competences of ER nurses

Min s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e Ra Yoo, RN., R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ilience and nursing competences of ER nurses and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variables.

152 ER Nurses in 6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 to August 31, 2015.

Korean resilience index(KRQ-53) by (Kim, 2011), and Clinical Nurse's Job Performance (Kim, 2007) were us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Frequency, Mean scores,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 WIN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the resilience was 79.93 ± 18.68 , ranged from 53 to 265.

To examine sub-domains of resilience, Interpersonal Skills domain showed

the mean item score of 3.57 ± 0.39 , Positive Castle domain showed mean score of 3.38 ± 0.48 , Self-Adjustment Capability domain showed mean score of 3.23 ± 0.41 .

2. The mean score of the nursing competences was 124.47 ± 16.46 , ranged from 35 to 175.

To examine each sub-domain of the nursing competence, Job Knowledge domain showed the mean item score of 3.81 ± 0.52 , Nursing Ethics zone domain showed mean score of 3.67 ± 0.60 , Work Performance domain showed the mean score of 3.53 ± 0.59 , Attitudes and Qualities domain showed the mean score of 3.53 ± 0.59 that appeared in the net.

3.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resilience according to type of dwelling ($p < .017$), religion ($p < .030$), educational background ($p < .040$), and the satisfaction of emergency department ($p < .002$).

Nursing competenc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igion ($p < .001$), educational background ($p < .017$), working motivation ($p < .019$) and ER satisfaction ($p < .001$).

4. Relations between resilience and nursing competences in the ER Nurs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r = 0.601$, $p < .001$).

Through the result of the higher resilience of the ER Nurses confirmed the more increasing ability of nursing duties.

Accordingly, various methods of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the resilience and the work performance of the emergency nurse will be developed on an ongoing basis.

Key words: Nurses in emergency, Resilience, Nursing competences